특목고생 우대·어려워진 논술…지방 수험생 갈수록 불리

수도권 대학 문턱 높아만 간다

올해 대입 전형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수도권에서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대학 자율화 방침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졌고,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방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어려워지는 논술 ▲특목고생 우대로 내신 무력화 ▲일부 최상위권 학생을 위한 수능 출제 등으로 요약된다.

광주·전남지역 지역민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나온 수도권 규제 완화나 종부세 사실상 폐지 등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교육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논술 원정' 가는 지방 학생=해마다 수능이 끝나고 논술과 면접 등 수시2학기 전형의 2단계 시험이 닥칠 때면, 서울에서 실시하는 200만~300만원 짜리 고액 논술과외를 위해 떠나는 광주·전남 고3 수험생들이 넘쳐난다. 올해도 수능 직후인 이번주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이 수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에서 이들 수도권 대학의 논술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입시학원 관계자는 "서울의 유명 논술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해도 서울로 가는 학생들을 막을 수 없다"며 "지망 대학별로 논술을 선별해 가르치는 곳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논술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힌 직후 한국외대는 수시1학기 심층면접에서 영어 지문을 사용한 문제와 풀이과정을 요구하는 수학 문제를 제출해 본고사 부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특목고생을 위한 수능=2009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안태인 서울대 교수는 수능일인 지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수리와 외국어의 난이도를 조정했다"며 "특목고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올해 수험생들은 특히 수리영역의 높은 난이도 때문에,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평소보다 20점 넘게 낮은 성적을 받아야 했다. 변별력을 갖춘 셈이나 일부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위해 수능의 난이도를 조절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한 인문계 고교 진학교사는 "출제위원장이라는 사람이 TV 앞에서 국민을 향해 특목고생 운운하며 수능의 출제 방향을 설명한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까다로운 수능으로 중하위권 성적이 바닥을 치면서 지방 학생들의 진학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위권에만 관심 갖는 대학=고려대는 최근 수시2-2 모집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을 우대한 의혹을 받았다.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계 학생을 제치고, 낮은 내신의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대입 관리·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대교협은 "입시전형 일정이 끝난 뒤 대학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 '3불 정책'을 어긴 사실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내신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대는 201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다른 대학의 입학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입의 경향도 수능 강화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에서 이 병원 하청업체 출신 해고 노동자 4명이 칼을 차고 복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인터넷 도박 집중 단속

광주·전남 66명 적발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6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에 L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접속자들에게 포커게임 등을 하게 하고 한 달여간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최모(39)씨를 구속하는 등 35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도 이 기간동안 17건에 31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전남경찰에 적발된 경우를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을 통한 도박행위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머니 불법 환전 16명 ▲불법 게임물 유통 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를 틈타 도박사이트 등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일선 경찰서 수사인력을 인터넷 도박 단속에 집중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한 달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모두 1천681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또 729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폐쇄 요청을 했다.

특히 이들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731명(4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사행성 게임이 경기 침체를 틈타 서민층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도박 모른다던 강병규씨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

서울중앙지검 마약 · 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9일 1천억원대 판돈이 오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사와 관련, 방송인 강병규〈사진〉씨가 본인 계좌로 인터넷 도박에 돈을 걸고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 사이버 머니를 받는 방식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11시께까지 조사했으며 강씨는 자신의 도박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검찰 소환 전까지 소속사와 매니저 등을 통해 "도박을 할 줄 모른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강씨가 해외 도박이나 사설 도박장을 개설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철거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훔친 신분증으로 게임하다 절도 들통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18일 대학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J(35)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8월 초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고시생 P(32)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동종 전과 2범인 J씨는 지난해까지 전남대 도서관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 붙잡혀 1년6개월 간 복역했으며 출소하자마자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장물을 팔아 PC게임방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

○…J씨는 광주지역 PC게임방 등을 돌면서 훔친 지갑에 있던 학생들의 신분증을 이용,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하다가 경찰에 덜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병원 전공의 숨진 채 발견

19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 6병동 지하 1층 계단에서 전공의 이모(25)씨가 숨져 있던 것은 원내 세탁소 주인 H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밤 결혼을 앞둔 친구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이날 새벽 2시께 헤어졌으며, 이씨가 발견된 지점 3~4m 위쪽인 1층 계단과 벽에서 미끄러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눈이 많이 내린 점과 현장의 상황으로 미뤄 이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뒤 동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육군 간부 목 매 숨져

육군 간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장성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17일 오후 11시 25분께 영내 체력단련장에서 이 부대 소속 A(45) 준위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다른 간부 군인이 발견했다.

A 준위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수첩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수능 사회문화 3번 100명 중 96명 틀려

올해 수능시험에서 응시생 100명 중 96명이 틀린 문제가 있다는 가채점 결과가 나왔다.

19일 온라인교육업체 메가스터디에 따르면 가채점 결과 사회탐구 선택과목 중 하나인 사회문화 3번 문제의 경우 가채점 학생 4만1천282명 중 4%(1천736명)만이 정답을 맞혔다.

이 문항은 3점짜리로 한 국가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화의 영향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표를 제시하고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것이다.

해당 문항은 주어진 자료를 벗어나 추론을 하면 오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고난도 문항이긴 하지만 지난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는 "올해 수능 전 영역을 통틀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일 것"이라며 "나머지 문제들은 정답률이 최소 두자리(10%)가 넘었고 최근 3년간 수능에서도 이처럼 정답률이 낮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건노조,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문제 개입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안병강)가 수년 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이 일하는 지방 최다 비정규직 보유 병원"이라며 "전남대병원이 최근 4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노동자 3명에 대해 해고통보를 하는 등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해 ,비정규직 해고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지난 2004년 병원 하청노동자 4명에 대해 복직약속을 하고도 4년이 넘도록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해고 하청노동자 4명은 지난 10월부터 복직약속 합의이행을 주장하며, 병원 앞에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